

ESCO 전성시대... 녹색기술로 시장 확대

2009 ESCO 관리자교육 (국제세미나)

세상은 넓고, ESCO가 할 일도 태산이다. 녹색성장의 축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ESCO가 나아갈 세상이 아직 많이 있는 것이다. 서울산업대학교와 (사)ESCO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ESCO 관리자교육(국제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ESCO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련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ESCO 분야의 새로운 경향과 미국과 일본의 ESCO 활용 사례 등이 소개됐다. 글 편집팀 사진 전석병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이번 세미나는 ESCO의 비전과 미래를 알 수 있는 뜻 깊은 하루였다. ESCO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가자들은 뜨거운 관심으로 세미나를 지켜봤다. 서울산업대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 김래현 센터장은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에 의한 에너지절약 확산을 유도하게 된 ESCO사업이 2006년 2,400억원 이상의 시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ESCO의 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마디였다.

김래현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좌가 시작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약 50여명의 관리자 들은 어두운 강의실에 유일한 빛이 되어주는 프로젝터 스크린에 시선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었다. 특히 ESCO 사업 관련 Project Financing 기법에 대해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지훈 과장이 더욱 실속 있는 금융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지식경제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 ESCO사업의 발전방향과 지원정책에 대한 강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녹색성장 중에서도 CO₂ 절감 및 CDM사업 연계방안 등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아이템들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직접 강의하며 참가자의 궁금증도 해소하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국제세미나의 형식에 걸맞게 선진국 사례로 미국과 일본의 종합적인 ESCO 활용 사례를 클린턴 재단 크리스토퍼 실리 박사와 일본ESCO협회 무라코시 박사가 직접 실례를 통해 설명하며 실용적인 방안을 강의했다. 평소에 찾아보기 어려운 외국의 ESCO 활용 사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ESCO와 CDM사업 연계 추가성 증명해야

이번 세미나에서 첫 강단에 선 ESCO 전문가를 소개한다. 바로 에너지정책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보이고 있는 석학, 서울산업대학교 박중구 교수였다. 그는 ‘ESCO사업을 통한 이산화탄소 절감 및 CDM사업 연계방안’을 주제로 ESCO로 인한 CO₂ 등 온실가스 절감, CDM 등의 현황 및 ESCO와 CO₂ 절감 - CDM 연계 방향 및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박중구 교수는 연계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조건으로 “CDM사업은 기존의 ESCO사업과 달리 사업의 추가성 증명이 필



수”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CDM사업의 추가성이란, CDM사업에서 얻어지는 온실가스 저감량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추가적이어야 한다는 교토의정서 상의 원칙으로 CDM사업 대상이 크레딧을 부여했을 때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일반 상업투자로는 매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박 교수는 “에너지 저감성이 우수한 ESCO사업은 CDM을 추진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이행했을 것이라는 논리가 적용 가능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 또는 직접 온실가스 제거 사업과 달리 ESCO사업은 투자 경제성이 우수해 CDM사업으로 진행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교수는 이어서 공적지원자금을 받은 CDM 사업에 대한 승인 불허 규정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지적했다. 그는 공적지원자금 성격을 갖고 있는 ESCO자금의 경우도 “대부분의 에너지 저감 및 효율개선 사업의 경우 승인된 방법론이 적고 적용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ESCO사업을 CDM사업화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운용실 홍순용 실장이 ‘우리나라



ESCO사업의 발전방향 및 정부지원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1,603억원의 정책자금을 용자지원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1억원 지원시 연간 약 38백만원 절감효과를 나타냈다고 자금지원 성과를 정리했다. 이에 따라 ESCO사업이 녹색성장을 이루는 주축임을 증명하게 되었고 앞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고효율 LED 조명 인증제를 도입해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신규시장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홍순용 실장의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2009년도 ESCO사업 자금지원 개요와 개정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자금지원의 축소 등 열악한 정부지원책이지만,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지난 60%에서 70%로 확대되고 예산의 조기집행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호 Partner 섹션에서 홍순용 실장을 직접 만나 자금지원지침 개정에 대해 들었다.

경제성을 제고하는 금융기법 및 해외 ESCO 사례

점심 식사를 한 후 이어진 두 번째 섹션에서는 한국투자신탁 운용 김지훈 과장이 'ESCO사업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국내 진행되고 있는 탄소펀드의 예를 들어 ESCO의 파이낸싱 구조에 대해 소개했다. 이로써 참가자들은 자금조달의 기초를 둔 프로젝트 추진이나 사업주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동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을 기초로 자금투자를 실행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물론 ESCO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탄소펀드의 차이점은 존재한다. 아직은 에너지 절감 설비와 기존 설비간 구분이 힘들어 담보권 설정의 문제가 있고, 에너지 절감사업의 규모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필요한 'Due diligence' 비용과 기타 거래 수수료를 감안할 경우 사업규모가 적은 프로젝트가 다수여서 장애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ESCO와 연계되



있을 경우 ESCO업체가 설립한 SPC에 대한 대출 및 지분 투자금액을 에너지 사용자의 사용료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ESCO업체가 대출 자금 상환에 대한 최종 책임을 보유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마지막으로 해외 전문가로 미국 클린턴 재단 크리스토퍼 실리 박사가 '미국 ESCO사업의 종합적인 사례 및 정책소개', 일본ESCO협회의 치하루 무라코시 박사가 '일본 ESCO사업의 종합적인 사례 및 정책소개' 등 외국의 ESCO사업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미국 클린턴 재단의 크리스토퍼 실리 박사는 클린턴 재단이 노력해온 ESCO 관련 사업과 고객의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파이낸싱 파트너십 형성 등 금융 메커니즘 형성을 위한 재단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했다. 미국 클린턴 재단은 아직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동남아시아와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30개 도시를 상대로 300회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

해온 성과를 소개하며 오바마 정권의 기후 변화 정책 관여에 힘쓰고 있는 재단의 도전과 노력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의를 마쳤다.

이어 무라코시 박사는 일본ESCO협회의 활동을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ESCO 사업의 시장 발전 단계와 규모 및 아시아 ESCO사업의 프로모션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소개했다. 그는 지금은 아시아의 에너지 시장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고 소견을 밝히며, 기술과 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혁신적인 ESCO사업이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ESCO를 이루어야 한다고 조언했다.